

비정상위 제 2 소구치의 발거

유치의 조기상실로 인한 후속 제 2 소구치가 설측으로 맹출되는 경우가 있다(그림 1). 이와같은 치아는 치아우식증시 교정치료를 위하여 또는 인접치와의 사이에 음식물이 축적될때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거하여야 한다.

발거방법은 치아의 맹출정도, 설측경사도, 치근의 모양 및 치아의 제거방향, 기타 매복치유무 및 제 1 소구치와 제 1 대구치의 간격등에 좌우된다.

설측으로 완전히 맹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림 1에서와 같이 #21, 151발치점자를 반대측에서 사용하여 발거한다.

치아가 보다 깊이 매식되어 있을때, 설측의 mucoperiosteal flap을 제거고 치관의 최대폭용부가 노출되도록 설측 치조골을 제거한다. 협측도 flap을 제거고 치관을 덮고있는 치조골을 제거한다. 치아 발거의 통로가 형성되면 원심 또는 협측에서 힘을 가하여 탈구시킨다. 이때 "brocken instrument" te-

chnique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 소구치 치근의 협측에 조그만 함몰부를 파고 작은 elevator를 대고 치아를 탈구시킬 수 있도록 mallet으로 힘을 가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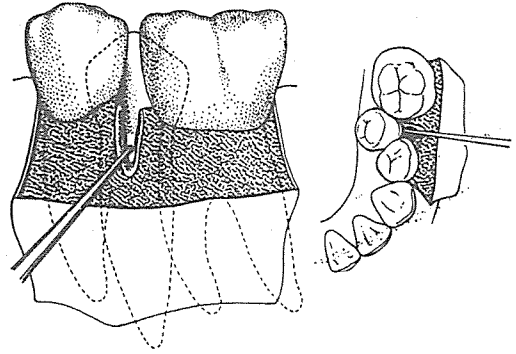


그림 2. "brocken instrument" technique

제 2 소구치가 그림 3에서와 같이 완전 매복시는 매복치의 치관을 완전히 노출시킨 후 치아를 절단하여 차례로 제거한다. 이때 隨神經과 인접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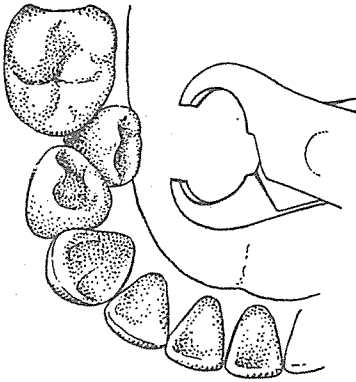


그림 1. #21, 151발치점자를 이용한 발거 제 1 소구치와 제 1 대구치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나 간격이 좁을때는 근, 원심측으로 발치점자를 사용한다. 힘은 설측운동과 치아장축에 대해 회전력을 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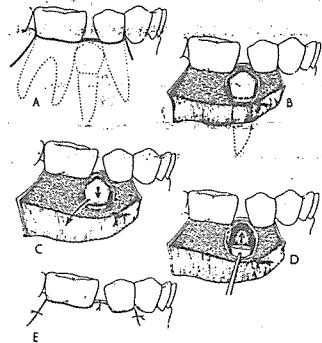


그림 3.

신일치과기공소

代表 孫 永 受

서울·중구 남대문로 5가 6-25(신한빌딩 402호)

☎ 756-2875 · 2876